

임실아쿠아페스티벌, 시원함 쏘다

28일간 여름축제 성황리... 4만여 명 관광객 중 9000여명 유료 입장

임실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이 수많은 지역민과 인근 도시민들의 방문 속에 성황리 마무리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북도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아쿠아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물놀이 방문객 등 4만여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 기간 중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에는 9천여명의 유료 입장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과 폭우 등 잦은 기상악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일평균 300여명 이상

이 방문하여 테마파크 일대는 연일 물놀이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초대형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설치한 대형 메인풀은 주요 이용층인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한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인기를 얻었다.

유아용 미끄럼틀과 유아풀은 유아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되어 시원한 여름을 선사했다.

또한 수상축구풀은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있는 놀이시설로 매일 운영시간내 큰 호응을 얻었다.

주말 방문객을 위해 펼쳐진 인형극, 마술, 발론, 음악공연 등은 아쿠아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꾸며 주었다.

다수의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으며, 물놀이와 이벤트가 함께하는 가성비 높은 행사로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는 평이다.

이번 행사는 5천원의 입장료를 내면 임실치즈테마파크 내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천원의 교환권을 제공(군민은 4천원)하는 유료 행사로 진행되었고, 행사기간을 28일간 확대 운영함으로써 비수기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입장권을 전북투어패스 상품으로 연계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4D영상관, 작은별영화관 등 지역 내 자유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았으며, 전북투어패스의 진가를 널리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이 수많은 지역민과 인근 도시민들의 방문 속에 성황리 마무리됐다.

아쿠아페스티벌의 인기로 더불어 이 기간 물놀이 외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아 치즈체험을 즐기고, 주변 경관을 즐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민 군수는 "아쿠아페스티벌이 임실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민 등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에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완하여, 내년에는 여름철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소통 앞장

150여명 대상 설명회 실시

남원시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21일 송동면사무소에서 송동면의 4개면 마을 이장 및 귀농귀촌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촌공간 최민규 대표를 초빙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갈등해소 및 융화에 대해 설명과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민의 오해 및 상생에 관한 내용과 해외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초고령화, 탈농 등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마을 과소화, 소멸 위험지역의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교육·보육·의료·기초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귀농인은 "처음 농촌에 내려와 낯선 환경, 기술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마을행사도 나서서 참여하다보니 지금은 어엿한 마을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도시와 농촌

의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아름다운 동행'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관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9월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환주 시장은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며,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가려면 남원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9월N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으로

임실군,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임실군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9월N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으로'라는 주제로 지역주민들의 독서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각각의 작은도서관마다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독서의 달 홍보 ▲강연 ▲체험 ▲공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먼저, 장기 연체로 책을 빌리지 못하는 도서관 이용제한 회원들을 위해 대출정지를 풀어주는 '연체 풀어준 DAY~', 도서관 방문자에게 책갈피 나눈 '책속 愛 책갈피', 독서의 달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하는 '서로 책로 독서로' 등 행사를 운영한다.

또한, 다독다독 작은도서관에서는 내달 2일부터 선착순 10명을 대상으로 '가로세로 독서퍼즐' 정답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여 책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체험 활동으로 ▲도서관에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다독다독, 가족15팀) ▲책속 주인공 그린 내만의 독서대 만들기(아침 없이 주는 나무, 초등 20명), 한민족 특유의 '홍'을 주제로 한 농악 콘서트 ▲아역한 인문학 콘서트(필름, 주민50명)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지사랑 작은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는 엄마와 함께 책을 읽고 마술공연 '도서관에 나타난 마술사' 등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무더운 더위가 물러나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군민들이 독서의 달 행사 참여를 통해 책과 친숙해지고 도서관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임실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누리집(http://www.imsil.go.kr/) 또는 임실군립도서관(☎063-640-2931), 작은도서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시-남명종합건설과 업무협약

남원시는 노암동에 건설중인 남명테라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남명종합건설(주)과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남원시와 남명종합건설(주)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올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남원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명산업개발 이병열 회장은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남명테라우 단지 내에 조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입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보육 증진에 앞장 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사업 진행

남원시는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향상지원프로그램, 사회성발달프로그램, 미래설계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향상지원프로그램은 5월부터 7월까지 14 가족을 대상으로 에너지그림 검사를 통해 자녀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가족화를 표현, 현재 가족상황 점검 등 성장기인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성발달프로그램은 7월 29일부터 1주일 동안 18명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형성된 동아리 "두근두근 남원탐험대"에서 관내 역사지 탐방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역사적 유적지에 대해 인지하고 또래활동을 통해 동질감을 형성했다.

미래설계프로그램은 8월 13일과 24일 다문화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양일간 진행하며, 지난 13일에는 신남원 변전소를 견학, 전기의 소중함과 안전한 사용법을 학습하였고, 오는 24일에는 곡성드림하이스터에서 25가지의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063-635-547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9월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군정홍보 및 관광홍보수단 적극 활용 계획

순창군이 오는 9월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지역 및 전국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군정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유튜브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 유튜브가 새로운 홍보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순창군도 오는 9월 본격 개설을 앞두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군정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전 세계 사용자가 동영상 업로드하고 시청하고 공유가 가능해 국내를 비롯 해외 홍보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공무원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가 유튜브를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에 오른 적이 있어, 군 입장에서도 홍보수단으로 유튜브 활용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군도 관광지나 체험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 걸쳐 일

상적인 면을 노출해 군정홍보를 비롯, 관광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60세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젊은 층이 이용하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군정 홍보수단으로 부적합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최근 와이즈앱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카톡이나 네이버, 다음 등 비교해서도 전 연령층에서 유튜브 이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생을 비롯 주민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적극 활용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교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순창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홍보수단으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군민들과도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내에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IMSEIL CHEESE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